

설교 기반 소그룹 강해 설교와 함께 제자 삼는 소그룹 만들기

앨런 스토다드(Alan Stoddard)
Preaching Magazine (2023 Winter)

설교 기반 소그룹에 대한 나의 이야기

2017년 7월 27일, 세상은 한 전설을 잃었습니다. 그날, 해든 로빈슨(Haddon Robinson) 박사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고든 콘웰 신학교의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로빈슨 박사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해든 로빈슨과 공부하고 싶었을 뿐, 학위 하나 더 받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2008년 마지막 세미나를 마쳤을 때, 저는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제 코호트(cohort, 동기생) 중 유일하게 논문 제안서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지만, 마음속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계속할지, 아니면 중도 포기를 선택할지 고민하던 중이었죠.

비행기가 3만 피트 상공에 이르렀을 때, 저는 "심플 처치(Simple Church)"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덜 하는 것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 단순화'에 대해 다루고 있었는데, 읽는 중에 제 마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책의 한 부분에서 어떤 목회자가 설교 기반 소그룹을 통해 강해 설교를 보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그 짧은 대목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 위에서 금을 발견하게 해 주신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도 이 주제로 뭔가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이 주제와 전략은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여행의 피로를 털고 일어나 '설교 기반 소그룹'이라는 단어를 구글에 검색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사역 전략은 완전히 바뀌었고, "설교 기반 소그룹을 통한 강해 설교 강화"라는 논문을 쓰게 되었고 졸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논문은 지금도 많은 열매를 맺고 있고, 저 자신이 그 열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 설교 기반 소그룹을 사용해야 하는가?

만약 내가 "신앙을 가진 지 얼마되지 않은 젊은 그리스도인 열 명 중 오직 한 명만이 실제로 제자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반응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느 모임에서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초점 중 하나는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이 제자로 양육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소그룹

전략이 존재하지만, 그 안의 실제 그룹들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 기반 소그룹은 사람들을 빠르게 제자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설교 기반 소그룹을 사용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제자훈련'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열 두 제자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이미지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소그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핵심 장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20 명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과 다시금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초점을 교회의 설교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설교 기반 소그룹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강단에서 성도에게 이르기까지 제자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기반 소그룹은 성경적인가?

설교 기반 소그룹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저는 학위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욕심과 박사 수준에서 천천히 배워가야 한다는 필요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작성하여 해든 로빈슨 박사님께 제출하고 세 번째 장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편함에서 받은 원고에는 빨간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은 쉽게 수정 가능한 부분이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코멘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설교 기반 소그룹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저를 매우 당황스럽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그 시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점이며, 좌절스러웠던 이유는 빠르게 과정을 끝내려던 저의 접근이 완전히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무리에게 전하신 후,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3년 동안 반복되었던 방식입니다.

사도행전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회당에서 공적으로 가르치던 장면들이 결국 가정에서의 모임으로 이어지는 예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바울이 베뢰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 일부 베뢰아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상고하며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살펴본 장면입니다(사도행전 17:10-11).

이러한 내용을 담아 두 번째 장을 다시 제출하였고, 로빈슨 박사님은 저의 성경 연구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설교 기반 소그룹은 성경적인가요?”

그 대답은 예입니다. 이러한 소그룹은 위대한 사명(The Great Commission)을 실천하는 증거이며, 초기 교회처럼 주일 설교에서 다룬 같은 주제를 그대로 다루는 방식입니다. 즉, 이 소그룹들은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제자를 양육하기 위한 교회를 하나로 묶는 전략입니다.

설교 기반 소그룹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장소이다

삶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를 복음의 능력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십니다. 즉,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 외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외적 표현이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의 가장 탁월한 표현은 제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소그룹 공동체에서 발견됩니다.

제자훈련에는 분명한 도전이 따릅니다. 설교 기반 소그룹은 이 도전에 대한 해답을 **에드거 데일의 '학습의 원뿔 이론(Cone of Learning)**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이론의 이름은 낯설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익숙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은 읽은 것의 **10%**를 기억합니다
- 들은 것의 20%
- 본 것의 30%
- 보고 들은 것의 50% (이 지점까지는 '수동적 학습'으로 분류됨)
- 토론한 것의 70%
- 실행한 것의 80%
- 가르친 것의 90%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설교자나 교사들에게는 다소 낙심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아주 적은 비율로만 기억합니다.

둘째, 위의 목록을 보면, '활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은 토론이 시작되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동적 학습과 활동적 학습 중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다 필요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대개 설교와 같은 수동적 콘텐츠 전달에 의존하면서, 활동적 학습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만약 활동적 학습이 '토론'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 말하게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도구는 주일 설교 본문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입니다.

삶의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표현을 통해 영적 성숙이 깊어집니다. 그 최상의 표현은 바로 제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소그룹 공동체에서 실현됩니다.

설교 기반 소그룹 실행을 위한 전략적 계획

1. 결단을 내리십시오

섬기시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의 중심 전략으로 설교 기반 소그룹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십시오.

2. 시작 시기를 정하십시오

한 학기 단위의 전략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시작 학기는 가을, 겨울, 봄 중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학기는 옵션이 아닙니다.)

3. 설교 시리즈를 계획하십시오

첫 번째 설교 시리즈는 첫 번째 학기 일정과 최대한 밀접하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첫 번째 실행에서는 가능한 한 일정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시리즈를 중심으로 설교 기반 소그룹 출범을 계획하십시오.

4. 소그룹 리더(SBSG 리더)를 선정하십시오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선정하십시오. 다음 네 가지 기준을 고려하십시오:

- 인격(Character)
- 관계적 적합성(Chemistry)
- 역량(Competence)
- 소명(Calling)

5. 리더를 제자화하십시오

목회자는 소그룹 리더들과 매달 한 번씩 만나 교제하고, 격려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들을 위한 7 분 분량의 주간 영상을 제작하여 훈련과 격려의 도구로 활용하십시오.

6. 질문 작성 팀을 구성하십시오

목회자가 직접 질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 과정에서 이미 몇 가지 질문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사역 팀이 있다면, 그들에게 질문과 관련 성구를 작성하는 책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문서 작성에 재능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을 순환 팀으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질문 작성을 맡길 수 있습니다.

7. 마감 일정을 정하십시오

계획을 미리 세우면 주간 사역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설교와 제자훈련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은 언제 작성되어야 합니까? 대부분의 설교 기반 소그룹 노트는 몇 주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다듬고, 업로드하고, 배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언제 변환합니까? 설교가 선포된 그 주의 주일 밤 또는 월요일 오전에는 웹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그룹 리더들에게는 2 주 전에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누가 이 업무를 맡습니까? 교회에 여유가 있다면, 행정 사역자가 담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구조적인 조정을 하십시오

현재 교회의 구조에 맞는 전략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십시오. 만약 주일학교 모델을 운영 중이라면, 설교 기반 소그룹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십시오.

우리는 하이브리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전략에는 단일 기사로 다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온캠퍼스(교회 내) 구조만 운영하고, 오프캠퍼스(가정이나 외부 장소) 소그룹을 운영하지 않는 교회는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들에게 자주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데 10 시간에서 20 시간을 쏟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그룹에서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십니까?

왜 주일의 흐름과 은혜를 이어 받아 화요일이나 수요일의 소그룹 모임까지 연결하지 않으십니까?”